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최정실*, 이미희**

*주성대학 작업치료과

**이화여자대학교 발달장애아동센터

국문초록

목적 :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내어,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업치료 중재방법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만 3세부터 7세까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복지관, 연구소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Parenting Stress Index (PSI)로, 삶의 질은 국내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Quality of Life를 이용하였다.

결과 :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삶의 질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총점을 비교해보면 정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정신지체나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점수보다 높은 편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차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서만 나타났다. 정서장애와 신체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정서장애보다 신체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상관성이 높았다. 반면에 정신지체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은 없었다.

결론 :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맞는 작업치료 중재방법 제시 및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삶의 질, 장애아동

I. 서론

자녀의 출생은 기쁨, 흥분과 함께 부모에게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가져다준다(정미영, 2004). 여성의 경우 일차적인 양육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양육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구속감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박혜미, 1994). 특히, 장애 아동이 출생한 경우는 섭식과 같은 기본적 양육에서부터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의료서비스나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박연숙, 2001). 이는 장애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 양육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오혜경, 1999).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비장애 아동을 둔 부모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더 느끼며, 이러한 양육에 대한 부담은 장애 아동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양육 스트레스이다(Cmic, Fridrich, & Greenberg, 1983; Harris & McHale, 1989). 또한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의 질과 부모-아이 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학교에서의 적응, 부모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bidin, Genkins, & McGaughey,

표 1. 연구대상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정도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정신지체	26	22.6	경증(mild)	33	28.7
정서장애	59	51.3	중도(moderate)	50	43.5
신체장애	30	26.1	심함(severe)	32	27.8
합계	115	100	합계	115	100

1992; Onatsu-Arvilommi, Nurmi, & Aunola, 1998).

삶의 질이란 “삶의 만족, 자아 존중감, 건강상태와 기능 및 사회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로 삶에 대하여 느끼는 안녕감, 복지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한다(George & Bearon, 1980). 선진국의 경우 장애 아동의 치료와 교육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이재혁, 2005).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더 많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관련 변인으로 아동의 성이나 연령, 장애정도, 장애유형, 출생 순위 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연구는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김영미, 1991; 문정희, 1995), 동일한 진단인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의 증상정도로 나타났다(김자윤 등, 2002). 또한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폐아동의 부모가 정상 아동 부모보다 의미 있게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발달지체의 부모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은 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리하여 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은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서혜영, 1992).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장애유형별로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한 연구, 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의 구성요소

에 대한 연구, 또한 유형별 삶의 질의 정도 등에 대해 단일적인 시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장애 유형별 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와 관계를 밝혀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업치료 중재방법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만 3세부터 7세까지의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복지관, 연구소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 115명(남자 80명, 여자 3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복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등록이 안된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장애아동의 평균연령은 4세 8개월이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세였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절반 이상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다(57%).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이 84%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부부와 자녀만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88%). 연구대상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는 (표 1)과 같다.

2. 연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할 총 96문항의 질문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13문항,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36문항,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47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ndex; PSI)
 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혜영(1992)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던 Abidin(1990)의 단축형 Parenting Stress Index(PSI/SF)를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의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근원에 따라 3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부모의 스트레스(부모영역; 하위영역 1),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관계 영역; 하위영역 2),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아동영역; 하위영역 3)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총 36개 문항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최소 1점(전혀 그렇지 않다)~최대 5점(매우 그렇다)까지 줄 수 있다. 총점은 최소 36점에서 최대 1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함을 의미한다. PSI 척도에 의하면 총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영역 1은 36점 이상, 하위영역 2는 27점 이상, 하위영역 3은 36점 이상일 경우 심각한 스트레스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질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된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는 0.9이며, 하위영역 1은 0.83, 하위영역 2는 0.79, 하위영역 3은 0.86이다.

2) 부모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일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만,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받은 표준화된 도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장애아동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된 삶의 질 측정도구는 노유자(1988)가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유자의 도구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이정은(2004)의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경제생활(10문항), 신체상태와 기능(9문항), 가족관계(6문항), 이웃관계(4문항), 정서상태(9문항), 자아 존중감(9문항)으로 총 6개 영역, 47개 문항으로 삶의 질을 답하게 되어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최소 1점(매우 불만)~최대 5점(매우 만족)까지 줄 수 있다. 총점은 최소 47점에서 최대 2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질문지 제작당시 신뢰도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Cronbach α 는 0.94였다.

3. 연구 절차

본 설문지는 기관의 협조가 가능한 기관에 우편 발송하였으며, 발송시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작성요령이 기재된 내용을 첨부하였다. 설문지작성은 해당 기관의 작업치료사에게 부탁하여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작성요령을 설명 후, 직접 작성한 것을 모아서 우편으로 회수되었다. 본 조사는 2004년 7월 1일~7월 30일 한 달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본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분석 방법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의 삶의 질의 정도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나 부모의 삶의 질의 정도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정 후 유의한 변수에 대한 사후검정은 Post Hoc test를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의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α 는 0.05로 정하였고, 윈도우 SPSS/PC+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PC+) 11.5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총점과 하위영역간의 점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총점에 있어서 정서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스트레스가 정신지체나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표 2).

표 2.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정신지체		정서장애		신체장애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하위영역 1	32.3±6.1	21~44	34.5±5.2	23~47	33.1±5.9	22~48
하위영역 2	31.2±5.8	20~46	33.6±5.1	23~50	29.3±5.3	16~40
하위영역 3	31.2±7.5	18~44	33.7±6.5	19~50	30.7±7.1	15~44
PSI	94.7±15.7	62~124	101.9±13.5	76~136	93.0±13.1	65~113

표 3. 장애유형별 삶의 질 정도

	정신지체		정서장애		신체장애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경제생활	29±5.2	15~42	28.5±5.6	14~40	28.5±5.7	17~42
신체상태	25.6±5.1	14~36	26.4±4.5	13~35	25.8±4.5	18~35
가족관계	20.2±3.9	11~29	19.5±3.1	11~25	21.0±3.3	12~28
이웃관계	12.4±1.6	9~15	13.0±2.7	8~27	12.4±2.2	7~17
정서상태	26.2±4.9	13~39	25.0±5.0	10~35	25.3±5.6	12~41
자아존중감	26.6±3.7	17~36	25.9±4.7	13~36	26.3±5.7	16~41
QOL	139.9±19.1	98~176	138.5±20.6	85~187	139.4±21.4	96~203

2. 장애유형별 삶의 질 정도

장애유형에 따른 삶의 질의 총점과 하위영역간의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장애유형과는 상관없이 장애아동을 둔 모든 부모들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점수 저하를 보인다(표 3).

3.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차이를 보이지만, 삶의 질에는 차이가 없었다.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사후 검정결과는 정서장애와 신체장애를 둔 부모간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표 4.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

	PSI			QOL		
	평균±표준편차	F	p	평균±표준편차	F	p
정신지체	94.7±15.7			139.9±19.1		
정서장애	101.9±13.5 ⁺	4.9	.01*	138.5±20.6	0.05	.95
신체장애	93.0±13.1 ⁺			139.4±21.4		

*ANOVA결과: $p < 0.05$,

⁺ 사후검정 결과: $p < 0.05$

4.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정서장애와 신체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특히, 신체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상관도가 정서장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지체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은 없었다(표 5).

표 5.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부모의 삶의 질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신지체	-.32
	정서장애	-.52*
	신체장애	-.64*

* $p<0.05$

IV. 고 찰

장애아동의 예후는 중재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주진단명에 의한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서비스, 특수교육비용 등 장애아동 양육에 드는 부가비용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민호, 2003).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뇌성마비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안녕이라든지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우울감,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이규리,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만 3세~7세까지의 작업치료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혀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업치료 중재방법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첫째로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삶의 질의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총점을 비교해보면 정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정신지체나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점수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정서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장애아동을 둔 부모보다 자녀가 환경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약하거나,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서 이에 대한 특별한 양육방법이 요구되는 기질적 특징이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기 때문이다(Beckman, 1983). 둘째로,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차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서만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연구대상이 '장애아동'이라는 명명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본다. 이는 모든 연구대상의 부모님은 자녀가 가진 장애에 대한 죄책감이나 장애상태의 회복여부에 대한 절망, 분노, 수치감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의 긴장이나 갈등의 요소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현숙, 1994). 셋째로, 정서장애와 신체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장애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을 연구한 정미영(2004)과 장애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연구한 이재혁(200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삶의 질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신지체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성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연구에서는 자폐성 아동, 즉 정서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스트레스가 신체장애나 정신지체아동을 둔 부모보다 높음을 밝혀왔다(김용진, 2003; 이한우, 강위영과 이상복, 1999; Holroyd & McArthur, 197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장애아동의 높은 양육스트레스에 비하여 삶의 질과의 상관성은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r=-.64, p<0.05$). 이는 아무리 높은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가족지원에 따라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조현경, 2002).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다른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 비하여 어머니의 신체적인 삶의 질이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통증과 불편, 여가시간 및 재충전할 기회의 부족, 피로감의 누적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이기량, 1993). 이에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어머니 이외에 가족구성원에게 신체장애아동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양육으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통증이나 피로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돌봄 자세기술을 교육한다. 또한 양육의 부담을 가족구성원이 함께 나눔으로서 양육부담이 가장 큰 어머니의 여가활동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미발견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지해 준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국가적으로 다른 장애아동들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체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를 위한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안으로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혜택을 넓히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구를 보급하며,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경기지역에서 본 연구에 동의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적은 수를 조사하였고, 시각장애 아동이나 청각장애아동의 경우는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추후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만 3~7세까지의 작업치료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정도 차이를 알아보며,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혀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업치료 중재방법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로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삶의 질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총점을 비교해보면 정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정신지체나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점수보다 높은 편이다. 둘째로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차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서만 나타났다. 셋째로 정서장애와 신체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신체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상관도가 정서장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지체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은 없었다.

참 고 문 헌

- 김영미. (1991). *뇌성미비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진. (2003). *어머니가 지각한 장애정도에 따른 정신지체장애아동 어머니와 자폐성 장애아동 어머니간의 양육 스트레스*. 서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자윤, 안동현, 고복자, 이영교, 이효경, 황혜순. (2002). 소아정신과 환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지지체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1(6), 1129-1140.
- 노유자. (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정희. (1995). *정신지체아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연숙. (2001). *자녀의 자폐적 특성에 따른 부모간 스트레스 차이*. 서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미. (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 (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리. (2004). *장애청소년 어머니의 삶의 질 구조분석*. 서울: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량. (1993). *지체장애인의 사회 관계망에 관한 연구*. 대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호. (2003). *발달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4). *발달장애 유아 부모의 삶의 질*. 서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혁. (2005).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우, 강위영, 이상복. (1999).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 간의 관계적 특성 연구. *특수교육연구회지*, 2, 99-117.
- 오혜경. (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서울: 아시아미 디어리서치
- 정미영. (2004).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 청주: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경. (2002). *발달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체험과 사회*

- 적 지지의 수용 및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 숙. (1994). 장애아 가정의 긴장과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집단가족지원서비스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9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Genkins, C. L., & McGaughey, M. C. (1992). The relationship of early family variables to children's subsequent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60-69.
- Beckman, P. J. (1983). Influence of selected child characteristics on stress in families of handicapped infants. *American Journal on Mental Deficiency*, 88(2): 150-156.
- Crníc, K. A., Fridrich, W. N., & Greenberg, T. (1983). Adaptation of family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A model of stress, coping, and family ecology. *American Journal on Mental Deficiency*, 88(2), 125-138.
- George, L. K., & Bearon, L. B. (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s*.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 Harris, V. S., & McHale, S. M. (1989). Family life problems, daily caregiving activitie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4, 231-239.
- Holroyd, J., & McArthur, D. (1976). Mental retardation and stress on the parent: A contrast between Down Syndrome and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0, 431-436.
- Onatsu-Arviolommi, T., Nurmi, J., & Aunola, K. (1998). Mothers' and fathers' well-being, parenting styles, and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at primary school.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Education*, 13, 543-556.

Abstract

A Study on Parenting Stress With Disabled Children and the Quality of Life

Choi, Jeong-Sil*, M.Sc., O.T., Lee, Mi-Hee**, B.H.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Juseong Colleg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ildren's Center for Developmental Support, Ewha Woman's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on disabled typ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Methods : 115 children(3 to 7years of age) received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 in rehabilitation hospitals or welfare centers for disabled persons at Seoul, Kyung-gi province. Their mothers were given Parenting Stress Index(PSI) to assess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scales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Results : The total PSI scores of psychological disorders were higher than the other group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parenting stress on the disabled types.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orders group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but mental retardation group was not correlative.

Conclusion : The study showed that clinicians must develop appropriative programs and social supports to decrease parenting stress and increase quality of life for their parent.

Key Words : Disabled Children, Parenting Stress, Quality of Life